

최근 5년간 연구개발에만 808억 원 투자 바디프랜드



전문가가 개발하는 안마의자... ‘핑거무빙’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승부

바디프랜드는 최근 5년간 808억 원의 기술연구개발비를 쓰는 등 과감히 투자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집계된 바디프랜드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34.5% 증가한 238억 원으로, 이는 매출액 대비 4.0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 발행한 ‘202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밝힌 중견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인 2.27%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런 연구개발 성과의 중심에는 2016년 업계 최초로 설립된 바디프랜드 ‘메디컬R&D센터’가 있다. 메디컬R&D센터에서는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각 분야 뛰어난 전문의 및 의공학자 등이 포진한다. 전문의들은 연구원으로서 마사지 모듈의 구조를 연구하고, 전문 지식을 접목하여 마사지 프로그램 로직을 직접 개발한다. 특히, 손맛에 가까운 마사지를 구현하는 ‘핑거무빙(Finger Moving) 기술’은 바디프랜드의 대표 제품인 더 파라오, 더팬텀 등에 적용된 XD-Pro 마사지 모듈의 핵심이다.

헬스케어 로봇 꿈을 실현할 첫 번째 로봇형 안마의자 ‘팬텀 로보’ 출시

최근에는 두 다리 안마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안마의자 ‘팬텀 로보(Phantom Rovo)’를 출시하며 헬스케어 로봇의 시작을 알렸다.

단순히 안마의자에 ‘앉는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좌, 우 양발에 하나씩 ‘착용한다’는 디자인 콘셉트를 담은 팬텀 로보는 마치 아이언맨의 로봇 슈트처럼 웨어러블 로봇 형태의 외관을 갖췄다. 화이트 컬러와 몸을 감싸는 듯한 형태는 미래적인 세련미를 표현했고 내부 시트는 인체 형상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두 다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마사지 패턴 설계 또한 가능해졌다.

이처럼 바디프랜드는 개별 구동이 가능한 미래형 헬스케어 제품의 특성을 살려 재활 치료 영역으로의 확장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립 구동 다리 마사지부 구조 및 로봇 마사지 모드 관련한 특허로 19건 출원, 4건 등록을 진행하기도 했다.

바디프랜드는 기술과 디자인, 품질, 서비스, 고객만족 등 5가지 분야에서 경쟁사가 추격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만든다는 ‘오감 초격차(超格差)’ 경영을 펼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3대 연구개발 조직을 통해 독보적인 마사지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안마의자가 집안에서 쉽고 편하게 온몸을 밀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바디프랜드 총괄부회장 지성규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안마의자와 의료가전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디프랜드는 대한민국 대표 헬스케어 기업으로 ‘건강수명 10년 연장’이라는 굳건한 목표를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하게 마사지 받으며 각종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로 연결하는 이른바 ‘디지털 헬스케어’, 더 나아가 ‘홈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